

# 세계는 지금 '극한 기후' 비상

### 지구촌 뒤흔친 폭염·폭우...이탈리아 47도·중동 50도, 프랑스는 가뭄 기후 변화에 경제적 손실 '눈덩이'...美 연간 1000억달러 손실 경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근로자들의 비명이 들리고 있으며,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전 사태를 겪는 곳도 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폭염에 더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폭염, 경제적 손실액은? 미국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폭염이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들의 비용을 늘리고 경제를 압박한다며 폭염의 경제적 피해에 관한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폭염으로 인한 만성적 신체 위협이 세계적으로 GDP(국내총생산)를 2100년까지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에이드리엔 아슈트록펠러재단 회복력센터는 지난 2021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1000억 달러(약 128조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단체의 책임자인 케이시 바우만 매클라우드는 모든 경제 분야가 폭염에 영향을 받지만 농업과 건설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열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조슈아 그라프 지

빈 샌디에이고대 교수는 지나친 열이 특정 야외산업이 관리해야 할 문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점점 극단적 상황은 기업과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구촌은 폭염과 전염병-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홀트빌의 온도는 거의 섭씨 46.1도(화씨 115도)까지 올랐다.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잭 베시 씨는 "그냥 일종의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텍사스주에서 지방 공사 사업을 하는 에이미 펠러 씨도 폭염 때문에 작업이 느려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 남부를 강타한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8500만명이 폭염 경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피닉스의 경우 20일 연속 43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 당국이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촉구한 상태다.

유럽 내 폭염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일부 지역의 기온은 최근 섭씨 47도까지 올라 2021년 8월 유럽 최고 기록인 48.8도에 근접했다. 사르데냐섬의 기온도 46도에 달했으며,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력망 압력으로 전날 정전이 발생한 로마의 기온도 38도를 찍

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산업계도 폭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 마그네티 마렐리의 솔모나 지역 공장 근로자들은 8시간 파업을 위협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질식할 것 같은 더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남부 일부 지역의 공장 노동자들은 폭염을 피해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교대 근무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리스 상황도 비슷하다. 아크로폴리스 및 기타 고대 유적지 직원들은 근무 조건에 항의하며 20일부터 하루 4시간씩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곳곳에서는 밤새 수십 건의 화재가 새로 발생해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들이 화재 진압 지원에 나섰다.

스페인 연안 해역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페인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 연안 해역의 평균 기온은 24.6도로, 평균보다 2.2도 높다. 카탈루냐 지방도 낮 최고 기온이 45.4도까지 오르면서 시립 수영장이 밤늦게까지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알프스 산기슭과 피레네산맥 지역의 고지대에서도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발 1500m의 기온이 30도를 넘고, 700m 정도의 중산간 지역의 기온도 40도에 육박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도 폭염이 시달리고 있다. 남동부 프로방스-알프스-코르다쥐르 지역은 이달 1일 이래 단 3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한 달 평균 21mm에 비해 적은 양이다. 가뭄 탓에 프랑스 96개 지역 중 83개 지역에선 물 사용이 제한



그리스 동남부 로도스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24일(현지시간) 공항에서 출발 항공편을 기다리며 노숙하고 있다. 지난 18일 그리스 중남부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이 22일 로도스섬에 번지면서, 주민과 관광객 등 수만 명이 대피했다. /연합뉴스

되고 있다. 독일에선 근로자를 위해 '낮잠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됐다.

중동도 더위와 싸움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시장은 20일 낮 최고 기온이 7월 평균 32도를 훌쩍 뛰어넘는 50도 이상으로 예상되자 이날 하루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줬다.

이집트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자 17일부터 내주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전력 부하를 줄이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도 폭염의 영향권을 피해 가진 못했다. 베이징시 기상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베이징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기록해 고온일수(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가 총 28일로 늘어 23년 만에 연간 고온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이전 베이징의 연간 최다 고온일수는 2000년 기록했던 26일이었다. 기상 당국은 베이징의 20일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 캄보디아 '38년 집권' 훈센, 총선 압승...독재 장기화

### 반대당 참여 배제 '가짜 선거' 논란 '후계자' 장남 권력세습 시기 주목

올해로 38년째 장기집권 중인 훈센(70)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번 총선에서 CPP가 승리하면 훈센은 5년간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이번 총선에는 CPP를 비롯해 총 18개 정당 소속 후보들이 총 24개 선거구에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지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라 전체 의석 125석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다. CPP가 전체 125석 중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석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훈센 정권에 도전장을 낸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촛불당(CP)의 총선 참여 자격이 박탈된 만큼 CPP는 전체 의석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면 투표 참관인을 캄보디아에 보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전국 2만378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971만 655명이며 이중 84.2%에 해당하는 817만7053명이 투표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년 전 총선(83.0%)에 비하면 1.2% 포인트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CPP의 총선 압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해왔다.

훈센은 총선 투표율과 관련해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주의 실현에 동참했다"면서 "선거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로 망명한 삼 랭시 전 CNRP 대표를 비롯한 훈센 반대 세력은 CP 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좌절되자 이번 총선을 "가짜 선거"라고 비난하면서 투표 불참을 독려했다.

이와 관련, 캄보디아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27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권좌를 지켜왔다. 훈센 정권은 2017년 11월에 당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를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했다. CPP는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훈센 정권이 총선 압승을 선언하면서 부자 간 권력 세습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훈센은 올해 7월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5년 임기를 마친 뒤

총리직을 장남인 훈 마넷에게 물려주겠다고 연초에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세계 석유시장 가격 상승 우려

세계 석유 시장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하반기 가격 상승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지프 맥모니클 국제에너지포럼(IEF)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도 고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회의의 부속 회담에 참석한 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IEF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기구(OPEC),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 등이 참여한 격년제 협의체다.

맥모니클 사무총장은 "석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공급 유지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맥모니클 사무총장은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를 꼽았다. 그는 두 나라가 올해 하반기에 하루 200만배럴의 새로운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민들레잎·뽕판지·마늘·리크·양파'

### 프리바이오틱스 많은 식품...장내 미생물 건강 도움

민들레잎(dandelion greens)과 뽕판지(제지갑자·Jerusalem artichoke), 마늘, 리크(부추 속 채소), 양파 등이 장내 미생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 있는 5가지 식품으로 꼽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주립대(SJSU) 존 가영 교수팀은 24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 회의(Nutrition 2023)에서 8960가지 식품의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집)의 먹이로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는 살이 있는 미생물이 들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용 방식은 다르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 조절, 칼슘 등 미네랄 흡수, 소화·면역 기능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국제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협회는 하루 5g 섭취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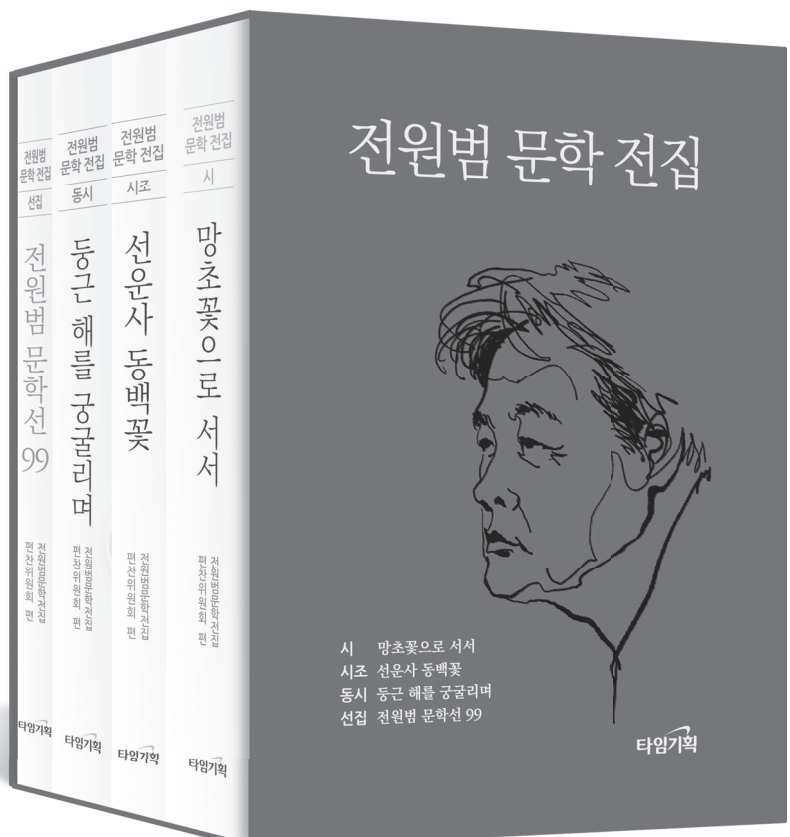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해 '식이 연구를 위한 식품·영양소 DB'

(FNDDS)에 포함된 8690개 식품의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3191개(36.7%)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량이 100mg/g 이상인 식품이 13개(0.1%), 50-100mg/g이 33개(0.4%), 1-49mg/g이 2991개로 분석됐다.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민들레잎(155-243mg/g)이었고, 다음은 뽕판지(210mg/g), 마늘(191-193mg/g), 리크(123-128mg/g), 양파(79-106mg/g), 튀긴 양파링(58mg/g), 크림 양파(51mg/g), 동부콩(50mg/g), 아스파라거스(50mg/g) 순이었다.

제1 연구자인 커센드라 보이드 연구원(석사 과정)은 "양파와 관련 식품에는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돼 있어 총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은 더 높다"며 "여러 요리에 사용되는 양파 등을 통해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바이오틱스 하루 권장량(5g)을 섭취하려면 민들레잎은 20g, 양파는 작은 것 반 개 정도인 57g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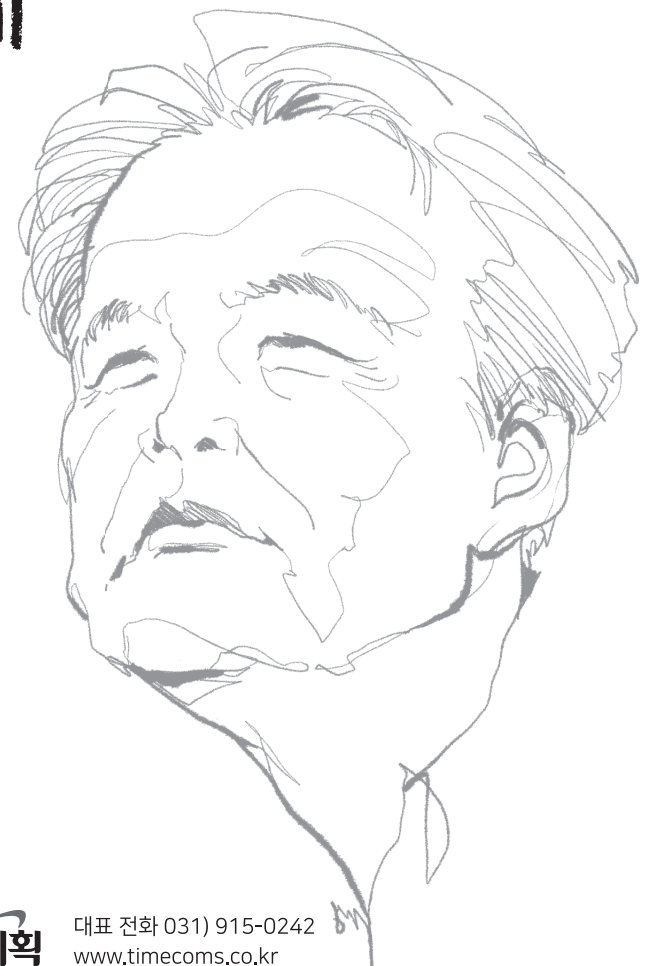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환(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